

새물

천기백 가사
정영은 가락
안태민 그림

$\text{♩} = 140$

싱그런 봄 날 의 - 따 뜻 한 햇 살 보 다
뜨거운 태양 내 리 쬐 는 거 리 를 벗 삼 아 -
화 창 한 가 을 날 - 시 원 한 바 람 보 다
시 린 바 람 몰 아 치 는 언 덕 에 선 우 리 -
사 람 이 더 불 어 사 는 세 상 - 포 기 할 수 없 기 에 -
부 서 지 고 깨 어 져 도 우 린 두 렵 지 않 아 - -
한 걸 음 한 걸 음 씩 - 내 딛 는 우 리 의 힘 찬 걸 음 이 -
아 름 다 운 세 상 - 만 드 는 한 줌 거 름 되 는 걸 -
조 금 씩 조 금 - 씩 흘 리 는 우 리 의 땀 방 울 이 -
더 러 운 세 상 씻 어 내 는 맑 은 - 새 물 - 되 는 걸 -